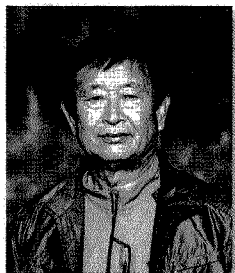




# 서주조경을 찾아서

장항제련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에 자리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황금소나무와 희귀, 이색 소나무 전문농장으로 명성을 날리는 유용희 사장의 서주조경을 찾았다.



유용희 (서주조경 대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 희귀 · 이색 황금소나무 전문농장

장항읍 성주리의 서주조경 본 농장에는 이름도 생소한 각종 희귀 변종 소나무들과 황금소나무들로 초겨울의 농장을 진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지금 한창 황금빛을 발하며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서주황금송과 슈퍼골드는 겨울 농장에 노란 송화꽃이 핀듯 햇빛에 눈이 부시고, 뱀의 눈을 닮았다는 사목송은 앞에 황금머리가 생기는 계절에 따라 남사목송과 여사목송으로 나누어지고, 경방송 · 홍공작송 · 황피성 · 호피송 등 황금계열 소나무들이 줄지어 자라다 잎이 하나인 변종 소나무는 곱슬머리 모양을 하여 파미송이라 하고, 겨울눈인 동이가 닭의

벼슬을 닮은 계관송· 처진소나무인 수양송· 잎이 큰 대왕송· 사향냄새가 나는 사향송 등 농장에 있는 소나무나 섬잣나무들은 대부분 변이종이거나 교잡종으로 총 84개나 되는 많은 종류들이 자라는 전문농장으로 그중에 으뜸은 역시 황금 소나무들이다.

### 소나무계의 마이다스(midas) 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처럼 서주조경 유용회 사장의 손을 거치면 소나무들은 모두 황금 소나무로 바뀌어 버린다.

1985년 조상 산소근처에 있던 황금색 소나무를 발견 채취하여 어렵게 3본을 소생시킨 것이 인연이 되어 관심을 갖던 중 2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친구가 지구 온난화 대비 황금소나무를 연구하는 것을 보고 몇 개의 품종을 구입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동남아나 중국 미국 등지의 해외여행 때는 반드시 소나무 종자와 접수를 구해와 각 나라의 여러 소나무들을 접목도 하고 교잡종도 만들면서 혼자만의 연구와 노력 끝에 독특한 황금소나무를 개발 육성하여 2010년에 서주황금솔과 황심솔 2종을 2011년에 서주지룡송의 품종보호 출원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 독점적인 재산권을 취득하였으며 지금도 출원을 준비 중인 황금소나무와 희귀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행여 훼손될까 소중히 다루고 있다.

### 방향의 세월

그는 1944년 금강변의 넓은 평야 지역 농촌마을인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에서 농사와 포목상을 하던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8세때 부친을 잃어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고 장항농고 원예과를 나온 후 전공을 살려 지금도 건재한 한국 굴지의 종묘회사인 국제원예사에 연구 농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장경순 농림부 장관이 농업 발전을 위해 특별 추진하던 선진 농업기술 연수 국비 해외장학생 파견 시험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원예분야 3명에 선발되어 1970. 4. 24 ~ 1971. 4. 24까지 1년간 일본에 유학하여 이론과 실제 농장 실습을 통해 양난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당시 최첨단 기술인 조직배양법까지 이수한 후 그 시절에는 수익성 높고 안정적인 사업



계관송 묘지



서주황금송을 살피는 유용회 사장



소나무 숲속에 숨겨 키우는 슈퍼퍼드 황금소나무



농장전경

인 일본에서 양난 유묘를 공급받아 키운 후 일본과 미국에 재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여 재배시설과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당시 300만원을 신청하니 농림부 지시와는 별도로 일선 농협에서는 담보 제공을 요청 가난한 살림에 담보물 없어 여러 기관을 뛰어다녔으나 3년간 허송세월하고 수출계약도 파기당한 후 관청에서 뒤늦게 현물 용자로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150만원어치를 가져다주니 그대로 고철덩어리가 되고 대신 빛만 쌀 700가마 분량이 되어 값을 능력도 없고 사업도 망쳐버려 그 좌절과 분노를 삭일 수가 없어 매일같이 술과 행패로 마을 사람들도 피하고 집에 오면 자식들도 숨기 바쁜 폐인의 길을 걸으며 자살 시도도 3번이나 하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촉망받는 유망 청년에서 멸시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 30대 젊음을 절망과 방황의 세월로 보냈다.

### 기사회생

사람이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하면 감정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 작용하는 것인가 어느 날 문득 젊어 홀로되신 어머니와 어린 자식과 고생만 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며 살아야 하겠다는 욕망으로 채소 재배부터 시작하여 철쭉 등 꽃나무들을 삼목으로 키워 판매하던 것이 수익이 올라가고 그때 외향선원이던 분이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영산홍 계통 네



서주황금송(특허출원송)

그로바라는 귀한 꽃을 전주에서 재배하여 상품성이 좋을 것 같아 1본에 쌀 5말에 구입코자 3번을 찾아가도 팔지를 앓고 문전박대, 하도 딱해 보였던지 일하는 아이가 작은 것 세 포기를 주어 가져다 그나마 한 포기는 도적맛고 두 포기로 삼목하여 3년만에 120평 밭에 한밭가득 증식하니 칠성구두 부품 납품 업자가 현찰로 쌀 65가마분에 일괄 구입해가 기사회생의 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아내의 김 장사와 어머니의 적극 도움으로 서서히 일어나게 되어 빛도 청산하고 조정업을 시작하는 기사회생의 계기가 되었다.

## 서천군의 명소들과 장항제련소

“서천군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장항제련소는 안다” 그만큼 장항 제련소가 유명하여 붙여진 말일 것이다. 충남의 서남쪽 맨 끝자락 유려한 금강이 서해와 만나는 풍요의 고장 서천군은 1913년에 서천군·한산군·비인군의 3개군이 합쳐 서천군으로 되었으며 1929년 장항 간척지를 메워 터전을 마련하고 이듬해인 1931년에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장항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36년 장항제련소가 설립되고 1937년 장항항구가 확장 개항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1939년에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설립당시 1,500톤 규모의 제련시설은 해방 이후 한국광업 제련공사로 개편후 1972년 민영화하여 년산 5만톤으로 확장되는 전성기를 맞았으며 수하여행의 단골코스이고 교과서에 항상 실렸던 높은 제련소 굴뚝은 1979년 무너지고 신축한 높이 90m의 굴뚝이 대신하고 있으나 중금속 오염 관계로 제련 시설은 폐쇄되어 인구 15,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로 되었다.

옛날부터 넓은 평야와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서천군에는 여름철 섬유로는 세계 최고라는 모시의 전통 기법이 금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한산모시의 고장이며 금강변의 신성리 넓은 갈대밭과 하굿둑의 철새도래지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먹거리로 백제 시절부터 전해 온다는 일명 앓은뱅이 술이라는 한산소곡주가 서천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 희망은 조경수에서 찾자

빛도 청산하고 집안 경제가 여유로워져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사업을 찾던 중 조경수 재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고 땅과 나무는 노력한 만큼 거짓 없이 결실되는 유망사업이라고 확신하여 농장 부지를 찾던 중 고향 마을은 금강 변의 넓은 평야로 논뿐이라서 나무를 심기에 부적합하여 장항 시내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비탈 시골 마을인 성주리로 1984년 이사하여 구룡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처음 400평에 조경수 재배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12,000평으로 늘어나 2002년 상호를 서주조경으로 변경하고 황금소나무와 이색 희귀소나무의 메카로 발전



고가의 슈퍼골드 황금송 포지

시켰다.

처음에는 향나무·삼색향나무·단풍나무·철쭉·영산홍 등을 재배하여 자전거 뒤애다 심고 각급 학교나 관공서들을 찾아다니며 소매를 하던 것이 의외로 호응이 좋아 멀리 군산지역까지 판매처를 넓히고 주변 토지를 구입 지금은 서천군의 여러 지역과 보령시와 전북 옥구군 지역까지 크고 작은 농장을 마련 총 35,000평에 황금소나무류 6,000여본을 보유하고 벚나무·느티나무·향나무·동백 등 일반조경수 2만여주를 재배하며 조경식재와 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연간 2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조경수계의 에디슨으로 신품종 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부인의 성공기

그가 오늘의 서주조경을 일으켜 황금소나무로 우뚝 서기까지는 그의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인 박청자 여사의 성공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홀어머니에 외아들인 그는 1966년 군에서 의가사 제대후 당시는 혼치 않던 연애로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서울 원예사에 취업과 이어서 일본 유학까지 아내를 두고 외지로 떠돌아 부인 혼자 홀어머니와 농사를 지으며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고 귀국 후 사업이 뜻대로 안되어 좌절하고 방황하던 시절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멸시하

고 기피하던 모진 세월에도 눈물과 절망을 삼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감싸고 용기와 희망을 주어 재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그녀 자신이 직접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맛종기로 이름난 서천산 김 판매를 소매가 아닌 통 크게 차떼기로 대량 유통을 하는 도매업을 하여 가정 경제를 이끌고 그에게는 마음편이 조경수 재배와 황금소나무 육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오늘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였으며 지금도 시력관계로 운전을 안 하는 남편의 발이 되어 어디든 달려가고 농장의 모든 일을 실제로 총괄하고 있는 가정도 살리고 농장도 일으킨 어머니며 아내인 장한 여장부의 파란만장한 인간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 황금소나무

황금소나무들은 1년생 묘목이라도 3만원까지 하고 출하에 적합한 5~6년생들도 본당 30만~40만원 하는 그야말로 가격도 황금인 나무들을 5,000여본 보유하고 있고 부르게 값이라는 10년생 이상도 다량 가지고 있으니 그는 지금 황금소나무의 전국 최고 권위자라는 명예와 부를 다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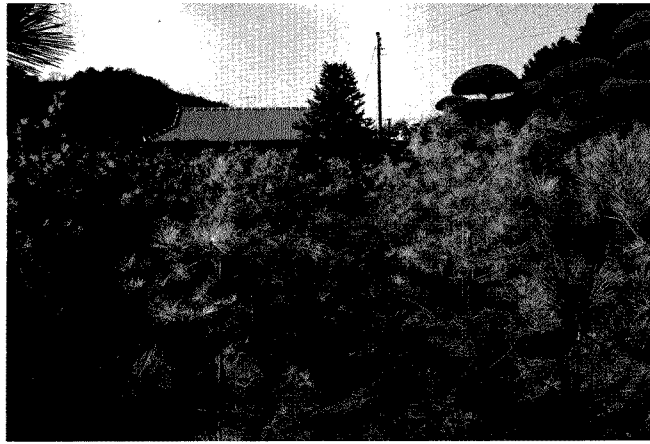
20년 전 일본 친구에게서 종묘를 가져올 때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소나무 조경수가 각광받고 황금소나무나 무늬종들이 더욱 유명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궁색한 산림에서도 희귀 소나무만 있다하면 어디든 달려가고 가에도 기어이 구입하는 고집스러움과 오로지 소나무 연구와 육종에 한우물을 판 덕에 지금 황금소나무를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인기 수종으로 만들어 농촌경제와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002년 농어촌 발전 대상을 수상하고 2006년에는 그의 기술력이 인정되어 임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산림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금도 항상 개발하고 연구하며 과학영농을 추구하는 조경수이다.

### 멈추지 않는 연구와 개발

그의 농장에는 소나무뿐 아니라 활엽수들도 이색 수종이 많다.

은행알 보다도 더 작은 중국감나무가 양증맛게 선홍의 열매를 달고 있고 홍보석 같은 작은 알들이 영롱한 장구밥나무며 높고 고집을 한 단풍나무와 한 나무에서도 가지마다 잎과 꽃이 색다른 조경수들과 일반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데도 실상은 대부분 교잡종으로 그의 농장에는 정상적인 나무보다 이색·희귀 수종들이 더 많이 자란다.

황금소나무와 무늬소나무도 각각 용도에 맞게 키운 가로수용과 공원이나 아



여사목송 재배포지



눈삼색 향나무



장구밥나무 열매

파트의 조경용. 작은 분재용으로 어린 묘목부터 구분하여 특색있게 재배하고 처진소나무나 4~5m 높은 대목에 고집한 황금소나무의 멋과 자태는 가히 그만의 특기라고 할 수 있다.

10만본의 황금소나무 육성을 위한 온. 습도와 광선을 조절하는 시험실과 재배관리소를 설치 중이며 보다 원활하고 질 높은 연구개발을 위해 충남 환경연구소와 서천군청 그리고 고구려대학(구 나주대학)과 연구개발 기술협약(MOU)을 맺어 과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변 확대와 후진 양성을 위해 1,500여명의 황금소나무 마니아들과 단체를 결성 수시로 교류를 하고 또한 그의 농장에서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상호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가져 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한편 황금소나무가 조달청 조경수 품목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조경수협회에는 2007년도에 가입하였으나 누구보다 협회 발전에 앞장서 일하는 그는 협회로부터 지하수개발지원과 조경수 판매 정보 등 많은 도움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이 원하면 황금소나무 재배 기술 보급과 농장견학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한다.

### 가화 만사성

그의 좌우명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방황하던 시절 어머니와 아내가 밀어주고 그는 뼈가 부서질 듯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모든 일이 순조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으로 터득 하였기에 지금도 항상 가족화목을 최우선으로 생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온 가족이 나서서 농장을 이끌어 가는 가족경영 체제로 하고 있다.

3남 1녀를 둔 그는 모두들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으며 큰아들이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1998년 귀농하여 농장일을 배운 젊은이답게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와 판매는 물론 모든 재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아들 역시 통신공학을 전공하여 전신전화국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조경수에 반하여 2005년에 귀농한 후 조경학과를 다시 이수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배우고 진취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경리는 며느리가 맡고 농장의 총괄은 부인이 하며 그는 황금소나무와 희귀, 이색 조경수 연구 개발과 판매에 전념하는 운영 체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여 세계적인 황금소나무 농장으로 가꾸어 가는 화목한 조경 가족이다. 🌲



금빛 찬란한 서주 황금송



피마송(오엽송 중 변종 일엽송)



하우스 내 이색소나무 묘목들